

### 3강. 감금회로망을 해체하고 어떻게 해방의 연결망을 만들 수 있을까?

#### [시설사회] 함께 읽기

나영정(장애여성공감)

기록: 김태은(가톨릭대)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여성공감에서 활동하는 나영정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5년차로 진행하고 계시는 난민인권센터에서 난민인권을 주제로 매년 연속강좌를 진행하고 계시는데, 올해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3강이고요. 제목을 “감금회로망을 해체하고 어떻게 해방의 연결망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제목을 붙여보았고, ‘시설사회’ 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자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이 책은 나온 지 1년 정도 됐는데요. 마침 곧 2쇄가 들어가는 소식이 있어서 반갑게 오늘 오게 되었고,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 책을 못 보신 분이 계시다면 언젠가 만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감금회로망’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장애여성공감의 여러 활동가들이 이 ‘감금회로망’ 개념. 이 개념은 책에 보면 김현철 필자가 쓰신 글에 나와 있는 개념인데요. 이 개념이 대개 마음에 들어서 여기저기 몇 번 이야기해봤는데 약간 전파자기장. 전기. 이런 거냐? 라고. 요새 문과냐 이과냐? 이런 농담을 방송에서 좀 하는데, 이과신가봐요? 이런 농담 아닌 농담도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해요. 근데 회로망이 아무래도 전기가 뻗어나가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에너지가 어디로 흐르냐? 이런 이야기들과도 연결될 수 있다고 합니다. 뒤에서 조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어쨌든 감금회로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시설사회’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서 좀 감금된 장소들이 도시 안에 국가 안에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기본적으로 교도소 같은 진짜 감금이 된 어떤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소위 누군가를 보호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시설들이 어떻게 감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도 할 것 같고, 그리고 물리적으로 어떤 건물 안에 누군가가 외출이 제한되고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야만 나올 수 있는 감금상태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여러 가지 이유로 관계에서 단절이 되고 어떤 사회적인 지원체계나 이런 곳에서 단절이 되고 아마 사회복지 용어에서는 사각지대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것들도 용어를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존재가 은폐되는 효과? 누가 강제적으로 썰사슬을 묶어놓

은 것은 아니지만 점점 드러나지 않게 되고, 그 사람의 문제는 그 사람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을 ‘시설화 과정’ 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감금의 효과’, ‘감금의 상태’ 라고 했을 때 굉장히 여러 상황을 지목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유지되려면 감금상태가 유지되려면 그것을 못 본척하는 그리고 그 감금상태를 유지시키는데 기여하는 굉장히 다양한 장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장애인시설의 대문은 잠겨있지 않거든요. 현관문도 열려있고 물론 밤12부터 새벽까지는 보안상 이유로 잠글 수 있겠지만 낮에는 열려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외출을 마음대로 하지 않을까? 왜 외박을 하지 않을까? 허락을 맡아야만 시설 거주인이 나올까? 이런 의문도 가능하고, 실제로는 장애인단체인인 저희 장애여성공감이 시설거주인들과 외출하게 되었을 때 거기 주변에 존재하는 어떤 가게주인이라든지 지하철 역무원이라든지 동네경찰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저기 시설에 사는 사람’ 그래서 뭔가 배회하는 것 같다 길을 잃은 것 같다 하면 그 시설에 연락해서 “당신이 보호하고 있는 사람 거리를 배회하고 있으니 데려가라”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회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감금이 유지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정말 조금 깨닫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설을 폐쇄하라!” 라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건물이 부서지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회로망이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도시의 회로망과 우리의 관계들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 건물이 아닌 또 다른 건물 안에 또 감금상태로 놓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해방의 연결망들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이 결국은 이 ‘시설사회’ 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일거다 라고 서두에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6:10)

**[새우깍기 고문의 발생조건 ‘보호’]**

최근에 너무너무 뉴스에 많이 나왔죠. 방송보신 분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새우깍기라는 고문이 외국인 보호소에서 행해졌습니다. 제가 소수자 난민인권네트워크라는 성소수자, HIV감염인 난민들이 한국사회에서 조금 더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를 고민하는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데 네트워크 구성원 중에 고문의 피해자를 지원하는 변호사나 활동가들이 있어서 소식을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부러 사진을 가져오지 않았지만 그 고문의 사진을 보니 너무 충격이 컸고 그 사진이 공개가 됐을 때 굉장히 언론들도 많이 반응을 하고 여론도 지금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악플입니다. 오죽했으면 저렇게 했겠냐? 그래서 한국인 교정시설 관리자들을 거기에 감정이입하는 댓글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법무부가 그렇게 공개했다고 하네요. “당신들이 CCTV공개하는

순간 우리는 이 사람이 얼마나 난동을 부렸는지 다 공개할거니까 당신들한테 오히려 불리할거니까 각오하라” 라고 협박도 했고 뉴스 통해서 반박영상을 공개한 이후 정말 많이 여론이 나빠져서 고문의 피해자께서 힘들어하는 상황이라고 해요. 지지자들이 많이 확인이 돼서 한편으로 힘을 얻기도 하지만 과연 내가 한국에서 희망이 있을까? 사실 이 분이 난민신청자였고 계속 일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나가는 과정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난민재신청 기간을 놓쳐서 미등록 상태가 되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 송사에 휘말리면서 단속이 되고 보호소에 감금이 되시게 됐는데 조금 지난 강의나 이런 것들 들으신 분은 들으셔서 알겠지만 보호소에 갇히는 순간 제3국으로 가거나 본국으로 가거나 아니면 여기에 계속 감금이 되거나 이런 선택지밖에 없는 상황이고. 활동가들이 어떻게든 보호일시해제를 해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난민인정을 하게 하는 것이 그나마 가장 좋은 방식인데요. 이 분 같은 경우에 사실 이런 고문이 드러났을 때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아니 외국인 보호하는 곳에서 왜 수갑이 등장하고,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구조가 교도소의 구조인 거잖아요? 대문에도 보시면 ‘청주외국인보호소’ 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 굉장히 감시체계라는 게 눈에 들어오고 높은 철문. 그래서 어디 탈출을 가로막는 건축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는데 난민인권센터 활동가이신 김현주님이 ‘시설사회’ 책 안에도 자세히 들어가 있지만 처음에는 외국인수용소가 수용소라는 이름으로 출발했다가 지금은 외국인보호소 이름만 바뀐 상태인 거고. 그리고 여기 들어가면 다 유니폼을 입고 있는데. 등에다 ‘보호외국인’, ‘보호중인 외국인’ 이런 식으로 등에 써져 있는데 보호되고 있는 외국인이 HIB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유리로 된 방안에 7개월간 혼자 구금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전혀 운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게 한국의 교정시설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정시설 안에서도 HIB감염인 경우에는 무조건 성소수자는 원칙적으로 독방 수용을 하고 운동도 따로 샤워도 따로 해야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보호라는 것이 누구를 누구로부터 보호하는가? 에 대한 질문을 당연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 보호소라는 것은 결국은 외국인으로부터 한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들을 수용하고 감금함으로써 보호소 밖을 보호하고자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보호소 내에서도 감염인을 격리수용하는 이유는 감염인으로부터 다른 수용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구나. 사실 이것은 코로나 때 명확하게 확인했던 것 같아요. 코호트 격리라는 지침이 있었는데 이것은 감염 위험이 높은 상황 안에서 이들을 치료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들이 밖으로 나옴으로 인해서 전파를 확산시킬까봐 두려워서 거기 안에서는 알아서 전파되는 말든 밖을 보호하기 위해 코호트 격리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한국사회에

서 국가가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위 중에 ‘보호행위’라는 말이 얼마나 인권과 불화하는가? 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인권담론에 있어서도 국가는 굉장히 ‘보호’라는 말을 쓰거든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는 굉장히 애를 쓰고 있다. 지금도 법무부나 인권위에서도 보호라는 말을 여기저기에서 많이 쓰고 있어요. 인권보호, 인권보호체계, 예전부터 활동가는 인권은 보호하는 게 아니라 보장하는 것이고 쟁취하는 것이고 증진하는 것이다 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국가가 스스로를 주체로 설정할 때는 계속 보호라는 말을 고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이 정말 이중적인 의미를 항상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를 보호한다고 선언하는 순간 누군가를 배제하겠다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동시에 말하고 있는. 그래서 이것은 제도가 만들어질 때 항상 발생하는 지점이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외국인 정책 중에 어떤 귀화한 외국인에게는 세금대출을 해주겠다 이런 식의 외국인에게 굉장히 좋은 정책을 만든 것처럼 발표하지만 귀화한 외국인과 귀화하지 않은 외국인을 구분하고 위계를 만들어내고 모든 제도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 제도를 시민들이 권리로서 요구할 때와 그 제도가 만들어져서 그것의 운영을 국가가 하기 시작할 때 그 제도는 의미도 다르고 효과도 다르고 그런 고민이 많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인권을 말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보게 되는 측면이 있는데 사실 보호의 주체의 문제는 이런 시설사회 혹은 시설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내가 어떤 공간에서 누구와 함께 살아갈 것인가를 이야기할 때도 계속 김현준이 그래도 있지만 외국인보호소의 공무원은 이렇게 말했대요. “이곳은 외국인을 보호하는 곳입니다. 호텔이에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그래서 안 떠나고 계속 사는겁니다” 라고 했다고 하죠. 그랬는데 리즈원이라는 분은 “감옥에서 지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서 지낸다는 것은 돌아갈 수 없다는 뜻이라는 것을 한국정부는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완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곳에서 살아가고 관계를 맺는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결정권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 에 따라서 이것이 보호된 상태. 나는 보호의 대상이 되는 그 지점이 바로 그 사람의 삶을 시설화된 삶으로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책에서도 여러 현장에서 지적하는 시설화된 상황을 그럴 때 보호된 상태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가출청소년이라든지 아니면 피해자 쉼터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래서 이 보호담론, 보호주의에 대한 도전이 시설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6:51)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공간에서의 질서, 룰, 그리고 관계 모양은 보호된 사람

은 결정할 수 없고 보호하는 사람이 언제나 결정해주죠. 그래서 물을 굉장히 잘 지키고 고분고분한 사람에게는 친절하게 해주지만, 새우껍기 고문의 피해자처럼 뭔가를 계속 요구하고 싸움을 걸고 주장하고 자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계속 강하게 표현하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겠다 혹은 당신을 결박함으로써 우리는 나머지를 보호하겠다 라는 의지를 발동시킬 수 있는 거고, 사실 그걸 한 거죠. 이 공간 안에서는 절대로 관리 주체와 대상이 달라질 수 없고 이것을 선을 넘으려는 순간 그 사람은 보호가 철회되거나 굉장히 신체가 구속되는 방식의 보호가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정말 이 공간에서 언제 나갈 수 있는지 예상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언제 나갈지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 라고 할 때 그나마 사람들은 조금 그 물을 존중하거나 참거나 할 수 있는 거 같아요. 근데 정말 시설화가 강력한 공간일수록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 모르고 나의 의지로 오지 않았고 그리고 언제 여기서 나갈 수 있는지 알 수 없고 그런 절차나 체계가 없고 내게 알려지지 않고 선택할 수 없다 했을 때 정말 멘붕상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예를 들면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단기쉼터는 3개월에서 길면 6개월 정도 지낼 수 있다 이것은 피해자의 권리다 이렇게 만들어진 시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시설화가 덜 되는 성격인거죠. 내가 싫으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고 어느 기간인지 명확하고 거기 안에도 물론 집단생활의 물을 지켜야하긴 하지만 그래도 권리담론이 이것을 이끌어내는 교류가 가능한 공간일텐데 그렇지 않은 곳일수록 이 관계양상이 억압적으로 바뀐다. 그래서 저는 이 책 안에도 김지혜님 같은 경우에 이런 보호나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시설이 거소를 할 때 예를 들면 주거를 하고 24시간 살아가는 공간이어야 할 때 이런 시설화의 위험성이 커진다고 지적을 하는데요 그래서 사실 모든 사람은 자기 집에서 살면서 필요한 자원을 연결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어쨌든 일시적으로라도 피할 곳이 필요하거나 지낼 곳이 필요한 경우에 이런 공간을 제공할 수 있지만 최소화되어야 한다 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거소를 전제로 한 시설일수록 집단생활을 유지해야된다 라는 물이나 관리자 이런 사람이 계속 등장하면서 그 사람이 동등한 시민이라기보다는 계속 일상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사람으로 규정될 수 밖에 없다. 그것은 집단생활을 유지하고자 하는 어떤 현실적 이유들로 인해서 정당화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사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억압적인 그런 구금시설부터 권리에 기반한 주거시설까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고 이 모든 것이 다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안에서 함께 먹고 자는 시설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권리에 가깝고 그것 또한 절차가 명확하고 민주적이어야 하고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선택지가 보장이 되어

야 한다 라는 지향을 계속 명확하게 확인해나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21:39)

사실 이 새우껍기 사건에 있어서 가까이서 지원하는 분들이 또 강조하시는 부분은 그런 지점인데요. 이 분이 정신적 질환 혹은 장애를 호소하고 실제로 약 복용이 필요하신 분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진료가 원활하게 되지 않았고 사람이 약을 복용하다가도 약이 잘 안 듣는 것 같다 라고 하면 다시 진료를 받고 싶고 약을 바꿔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본인이 결정할 수 없는 공간인거죠. 여기서도 항상 치료를 받을지 말지 다른 사람이 결정하는 상황이었고 당연히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진료 없이 대리처방하는 방식으로 약만 누가 가져다주는 그래서 맞지 않는 약을 계속 먹어야 되는 상황도 너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아까 제가 멘붕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정말 내가 어디에서 언제까지 있어야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너무나 정신적인 장애가 발생하기에 너무 용이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심각한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일수록 사회에서 배제되기 쉽고. 배제를 경험하다보면 일자리를 갖기도 어렵고 해고당하기도 쉽고 그러다보면 송사에 휘말렸을 때 자기를 제대로 변호하지 못할 가능성도 높고 그러면 교정시설에 올 가능성이 높는데. 이런 취약한 상황 안에서 교정시설에 오면 또 트라우마나 정신질환이 낮기는 커녕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이 악순환으로 반복될 지점들. 그래서 정신질환은 위험하니까 보호하자 이런 논리가 결국은 정신장애인의 건강이나 권리를 보장하거나 어떤 건강을 낮게하는 방식이 아니라 단지 사회에서 은폐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 측면이 많이 있고 이것이 다른 나라에서도 빈곤화와 정신적 장애, 신체적 장애 이런 부분이 계속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된 사람이 결국은 교정시설에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실 장애인의 탈시설 운동 안에서 이런 지점은 더 앞으로 더 많이 고민해야 하는 지점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장애인 시설 안에 대개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이 있었고.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들이 주로 있는 시설이 있고 중증, 중복 장애인들이 있는 시설들도 있고 아주 경한 장애를 가진 시설들도 있어요. 그런데 중복 장애를 가진 분들의 많은 경우는 지적장애나 정신장애를 동반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특히나 의사소통 관련해서 청각이나 시각장애를 동시에 가지고 있을 때 자기 의사를 대변하는 게 너무 어렵고 그랬을 때 이 사람은 탈시설 욕구나 의지도 확인되지 않는다해서 탈시설지원정책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정신장애를 가진 경우는 이 사람은 문제를 가진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뭔가 장애인의 이미지는 신체적으로 제한점이 있어서 편의시설이 필

요하고 의사소통의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지만 이렇게 분노조절도 못하고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이런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은 그냥 문제를 가진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장애 유형에 대해서도 사회가 가진 낙인이나 편견이 다르게 작동을 하면서 실제로는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 중에는 등록을 하지 않은 분도 있고 그래서 장애인으로 스스로 인식하거나 사회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도 많아서 단지 그런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 사회적으로 적응을 못한 사람으로 이렇게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의 권리 안에 포섭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경제적 위기나 사회적으로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람들과의 단절도 굉장히 심해지고 그랬을 때 정신적 위기나 질환을 경험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날텐데 이런 것 관련해서 한국사회에서는 그냥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문제가 생기면 교도소로 수용하는 것 외에 지역사회에 자원이 너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특히 외국인의 경우는 이 사람이 언어의 문제인지 아니면 정신질환을 가진 것인지 제대로 상담해줄 사람이 너무 부족해서 오해에 기반해서 구금된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 지점들이 앞으로 까다롭지만 꼭 해결이 되어야 하는 과제인 것 같습니다. (27:30)

[산재가 되는 몸의 발생조건, 전쟁과 산업의 부수적 피해?]

사실 최근에 산재 사건들이 많이 있죠. 최근이 아니라 계속 많이 있었지만. 최근에 방송이 된 두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면 어떤 20대가 처음 출근한 날 보조 밧줄이 없이 아파트 외벽을 청소하다가 외부 간판에 쓸려서 추락해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어제였나? 그저께였나요? 현장실습 고교생이 뭘 배우러 갔는데 갑자기 조개를 떼라고 해서 바닥에 있는. 그걸 하다가 전혀 잠수훈련도 안되었고 수영도 못하는 사람인데 사망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보호라는 것이 정말 우리 사회에서 어디서 누구를 위해서 작동하나? 라는 질문을 같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설에 수용되는 사람은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한국사회에서 역사적으로도 부랑인, 노동기피자, 노동 무능력자 이런 사람들이 주로 시설에 수용되어 왔는데 일을 하고 싶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보호받지 못한 노동을 하다가 너무나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 산재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로 인해서 정말 많은 몸들이 장애를 갖게 되기 시작하는데 우리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비용이 너무 부담이 된다 그래서 장애를 예방하자 그래서 장애를 예방하려면 산모(?)가 잘해야 한다 이런 식의 캠페인을 너무 많이 하는데 일단 나아져서 세상에 나오면 아무도 보호하지 않는 느낌이 너무 강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자원이나 계급적으로 어떤 보호체계가 취약한 계층이나 계급이 되면 이런 게 너무 명확하게 보이는 것이고. 이 두 가지 사건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사건이라서 사람들이 더 분노를 했는데 이걸 보면서 그냥 이런 보호체계에 투자하지 않는 것이 어떤 사람의 경우에 사망, 상해를 입는 것보다 크게 손해보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계산 없이 이정도로 보호체계가 안 돌아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숨값이나 몸의 가치가 극명하게 달라지는. 점점 더 이 격차가 벌어지는 느낌이 있고. 사실 이런 음모 혹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실 북미같은 곳에서 노예제 역사가 있는 나라에서는 너무나 흑인의 몸이 그런 몸으로 오랫동안 다루어져 왔고 누가 다치거나 죽는 것에 대해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국가가 그것을 숨김없이 그렇게 표현을 해왔다 라는 것에 대해 많은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흑인의 생명은 중요하다 라고 굳이 이야기를 해야하는 맥락들에 대해서 우리도 최근에 더 많이 배웠던 것 같고요. 그래서 코로나 때 누구에게 의약품이 먼저 배분되는가? 이런 위계를 통해서도 보았고. 한편으로는 이제 ‘쇠약화’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런 생명의 위계가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분석하는 해외 자스비어 푸아르라는 이론가가 있는데 제가 여기 작게 써놓은 이유림과 이진한님의 글을 통해서 이런 문제의식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상을 생산하는 체계가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푸아르라는 학자는 팔레인스타인 사람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폭격을 하고 그런데 죽이지는 않지만 정말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하지만 병원을 파괴하면서 이 사람들의 손상을 영구하게 만들고 사망자의 통계에는 잡히지 않지만 점점 더 이 사람의 역량을 없애고 사회 전체적으로 쇠약화를 만들고 저항하지 못하는 주체로 만들려고 하는 억압의 체계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지금 한국사회의 산업체제 자체가 이런 억압을 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올림 같은 단체에서 10대 지금으로 따지면 현장실습같은 10대 여성들이 반도체공장에서 야간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일을 하는 형식으로 많이 시작했고. 그런 위험물질을 다루면서 보호장비를 제공하지 않은 어처구니없는 일을 그래서 최근 반올림에서 제기하는 이슈는 그런 여성들이 5년, 10년 지나서 출산을 하게 되었을 때 그 2세에게 산재 영향이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이미 해왔고. 하지만 그 이야기를 못하다가 최근 2세 산재와 관련해 소송을 시작하고 피해사례를 모으고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재생산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국가는 건강한 인구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 정책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캠페인을 하고 교육을 하는 과정인데, 이 반도체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들에게는 국가가 나서서 이런 재생산 건강을 해치고



이것을 오히려 정상화 시키는 과정들을 보면서 정말 어떤 몸이 보호받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몸이 함부로 다루어지는 과정 안에서 그걸 통해 만들어진 이익은 어디에 쓰이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이익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보호받지 못한 상태로 계속 감금되거나 혹은 노동을 강제당한 사람들의 인구가 일정 부분 계속 필요한데 그것을 누구에게 할당하고 있는가? 그게 대부분 계급이 낮은 10대, 혹은 이주노동자, 유색인 이주노동자, 장애인, 노인 이런 인구군에게 할당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거 검색하면 볼 수 있어요?) 네. 아마 쉐어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새우껍기 고문 사건과 최근 발생한 산재사망사건을 가지고 ‘시설화’ 관련된 것을 연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드렸는데요 (36:10)

[시설화]

그래서 저희가 책에서 ‘시설화’를 정의해보고 정리를 해봤는데. 조미경님 같은 경우는 “지배 권력에 의해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보호, 격리, 관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사회와 분리를 시키고 권리와 자원을 차단함으로써 불능화, 혹은 무력화된 존재에게 하며 자신의 삶의 통제권을 제한하여 주체성을 상실시키는 것.” 그래서 아마 문장에서 느껴지지만 굉장히 과정이고 진행되는. 그러니까 한번 규정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호의 대상이 되고 그렇게 보호의 대상이 된 채로 살아가면서 점점 더 무력화. 자기의 역량을 없애지게 하고 그것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과정으로 삶의 시간들을 겪게 하는 것이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그래서 시설화를 차별과 지배 메커니즘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런 대상이 될 때 낙인을 받게 되고 이것이 누적되면 예외없이 빈곤화로 이어지게 되는. 그래서 이게 삶의 장소에서 소외되거나 박탈당하고.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너무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손상되고 지식과 기술을 익히는 교육에서 제외되고 그리고 너무 많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노동이 굉장히 소모적인 일에 내몰리게 되는. 이런 도미노를 겪는 과정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미경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문제제기 하기 위해서는 시설화가 시민과 비시민, 자활이 가능한 자와 불가능한 자, 사회규범에 적합한 자와 이탈한 자를 끊임없이 구분하고 선별하고 배제함으로써 인권을 당위적인 것이 아니라 자격이 주어져야만 누릴 수 있는 권리. 이게 결국 특권이겠죠? 특권화로 만드는 과정과 동시에 진행된다. 그리고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자격미달인 비정상 범주를 재생산할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자격 자체를 도전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계속 자격미달인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이때 정상범주에 들어가지 못한 존재가 삶에서 선택권을 갖지 못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개인의 문제가 된다. 그래서 시설화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이런 권리 개념이 축소되고 왜곡되고 뭔가 흔들리는 지금의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39:10)

### [기획의 시작]

저희가 2017년 말에 이 책의 기획이라고 그때는 책이 될 줄 몰랐지만 2017년부터 이 문제를 생각해보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지금 시장이 바뀌어서 서울시 탈시설정책이 얼마나 변화가 있을지 유지가 될지 모르는 일이지만 박원순 시장 하에서 열심히 우리가 투쟁을 해서 정부나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먼저 만들어낸 정책들이 몇 가지가 있었고 그 중의 하나가 탈시설 지원정책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IL센터라고 하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혹은 독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여성공감에는 숨센터가 있는데요. 숨센터가 활동의 일환으로서 장애인 시설과 연결되어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 탈시설 욕구가 있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실제로 탈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 형태가 가능해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2017년에 하게 되면서 강동구, 송파구에 있는 시설 세 군데와 연결되어 방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고. 뒤로 갔어요. 아 돌아갈 수 없군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방문을 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의문을 가진 것은 지체장애시설이었는데 장애여성이 굉장히 적게 계신 거예요. 아예 남성만 수용하는 시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적을까? 그리고 다른 시설에도 여쭙봤더니 대부분 남성이 수용된 비율이 높다 라고 해서 그러면 장애 여성은 어디 계신걸까?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됐고. 그리고 그 안에서 관계들이 어떻게 맺어지는지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과정이기도 했어요. 예를 들면 거주인들이 생활교사나 종사자들을 엄마 혹은 아빠라고 부르는 경우를 보게 된 것이고 우리는 정말 한가족이다 그리고 외부인을 위해서 만든 여러 가지 체육대회 사진, 혹은 야유회 사진 이런 것들이 잘 전시되어 있고 이미 우리에게 탈시설 욕구가 있는 사람은 이리이러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그 안에서 선별해서 우리를 만나게 해줬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고 싶은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그런데 그것도 재밌었던 것들이요 시설에서는 그나마 장애가 덜 중하고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생활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더 선별해서 저희에게 연결해줬는데. 그런데 2017, 2018, 2019, 2020년 해를 거듭하면서 이런 탈시설 지원사업을 하지만 정말 탈시설로 이어진 경우는 굉장히 소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에게 소개 해주시는 분들은 대부분 시설에서 운영하는 보호작업장이 있어요. 그 작업장에서 굉장히 일을 많이 하는 분들이에요. 의사소통이 되고 물을 이해하고 신체적

인 활동을 통해 뭔가 포장이나 여러 가지 보호작업장에서 할 수 있는 노동을 하시는 분. 그래서 그분들이 탈시설하면 보호작업장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약간 당신은 탈시설하려면 자립을 하려면 돈을 모아야하니까 보호작업장을 열심히 다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숨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다니느라 자꾸 보호작업장을 빠지시면 돈을 언제 모으느냐? 하면서 압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호작업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 할수록 자립의 시간은 점점 늦어지고 자립을 위한 관계맺음이나 다른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시설들은 프로그램이 하나 늘어난 것으로 이것을 이해하고 있구나’ 그래서 지역 사회를 체험하고 다른 사람들을 조금 만나보고 그래서 굉장히 우리를 의심스러워하고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까? 저 사람들을 이상하게 선동하지 않을까? 분위기 해치지 않을까? 계속 주시하면서 굉장히 긴장하면서도 이 사람들이 최대한 늦게 탈시설하도록 뭔가 지연시키는 효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게 그래서 노동과 너무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예 노동현장에 들어가기 어려운 분들은 이 사람들이 자립하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야기하며 차단을 하고. 그래서 노동과 관련된 딜레마가 있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서도 보호작업장은 무엇을 보호하는 작업장인가? 했을 때 어쨌든 소위 이 사람이 보호된 작업장이 아니라 정말 그냥 아무 작업장에 간다면 금방 해고될 위험들이 많겠죠. 일하는 속도 혹은 의사소통의 역량과 경험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그래서 아마 그것으로부터 이 사람들을 보호한다 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가는 최저임금에서 제외하는 대가를 받아야 하는 거죠. 하루에 5시간씩 한달 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음에도 임금은 5만원에서 30만원 사이. 굉장히 어떤 책에도 확인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고. 그래서 경쟁으로부터 보호되는 느낌은 있지만 계속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보호의 효과. 이런 이중적인 보호의 의미를 다시 확인하게 됐던 것 같고요. (46:15)

그래서 저희가 “왜 장애여성이 보이지 않을까?” 의문을 가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서문에서 저희가 나눈 토론의 내용을 정리해 넣었는데 여러 가지 가설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지체장애인, 신체장애인 같은 경우는 노동능력이 없기 때문에 시설에 수용된 것이 여러모로 좋다. 가족의 부담도 줄이고 효율적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식의 논리로 시설수용을 그동안 정당화해왔는데. 문제는 이게 성별에 따라서 다른 노동이 기대된다는 거죠. 장애여성 같은 경우에 집안에서 가사노동을 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시장노동은 여전히 할 수 없는 사람으로 평가되지만 집안에서 뭔가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굳이 시설에는 보낼 필요가 없는 그런 여성의 역할을 가사노동을 하도록 요구를 받고. 하지만 장애

남성 같은 경우는 집에 있어봤자 가사노동에 도움이 안될 것이고 그냥 시설 수용하는 게 낫다 라는 그런 판단들이 가족들에 의해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장애여성공감에서 소위 재가장애인으로서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많은 장애여성들 그리고 그 안에는 지적장애여성, 발달장애여성 다양한 장애를 갖고 있는 여성들이 있지만 대부분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을 열심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족들은 이 여성들이 집에서 놓고 있다 우리가 이들을 보호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들이 집안에서 담당하고 역할에 대한 보상이나 인정이 가족 안에서 제대로 돌아가지 않은 상황이 많은 거죠. 어쨌든 그런 점에서 ‘아 시설에서 보이지 않구나’ 그런데 사실 집안에 있다고 해서 시설화된 상태에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감금 효과를 여기에서도 보이고 있는 거죠 외출이 안되고 사회적 관계로부터 단절된 상태에서 집안에 갇혀서 노동을 하고 있는 장애여성이 얼마나 많을까? 이런 예상을 당연히 하게 될 수밖에 없었고요. (48:49)

그리고 또 하나는 집결지라는 성매매현장 안에서 경계선 지적 장애를 가진 장애 여성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 여성들은 자기주장을 하기 어렵다 혹은 다른 노동을 선택하는 것이 더 어렵다 라는 이유. 그리고 외모자원이나 이런 어떤 것들이 비장애여성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이유로 진상손님 전담을 하거나 아니면 돈이 없는 그런 하층민을 전담하는 그런 역할로 집결지 안에 특히나 은폐된 상태로 존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라고 들었거든요. 그런 과정.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동안 ‘장애인 노예노동’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언론에서 접하게 되고 그 노예노동으로 드러나서 가시화되는 경우도 장애남성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염전에서 끊임없이 대가없이 오래 일을 했다거나 농사일을 그냥 먹여주고 재워 준다는 이유로 대가없이 노동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났는데 장애여성도 거의 비슷한 조건. 대가없이 그냥 보호하고 있다는 명목 하에 그런 성노동 현장 안에서 많이 존재하지 않을까? 은폐된 상태로. 이런 여러 가지 예상들을 해보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2018년부터 이런 시설화 문제를 장애인 탈시설운동에서 넓혀서 시설화의 억압을 공유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 우리의 동료, 동지들을 찾아서 같이 이야기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였고 그중에 한 단체가 난민인권센터였고 한부모운동이었고 가족구성권운동이었고 탈가정청소년을 지원하는 단체, 빈곤사회연대 그리고 HIV 에이즈 운동 가운데 특히 요양병원 문제를 제기하는 활동가들 이런 영역에 손을 내밀었던 것 같고요. 정말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호응과 공감과 분노와 이런 걸 나누면서 만나길 잘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것 같고. 이 이야기를 같이 했을 때 각각의 집단이 처한 굉장히 특수하고 독특한

사안이나 조건들이 있지만 그것이 결국은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특수함은 당신이 장애를 가졌기 때문이다 당신이 난민이기 때문에 그런 특수한 상황을 겪는거다 이렇게 그 사람의 속성으로 환원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 그것이 아니라, 뭔가 생산력이 없거나 떨어지거나 혹은 선량한 시민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낙인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가정이나 학교, 직장이라는 정상화된 곳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에게 차별의 효과로서 시설화를 선사하는 지금의 사회적 조건을 함께 이야기했을 때, ‘이게 우리 탓이 아니구나 우리를 다르게 배치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우리에게 발동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서로 확인을 하면서 힘도 생기고 확신도 생기고 이런 문제제기를 해야겠다는 의지도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병권씨 같은 경우에 이런 ‘시설사회’라는 말을 고병권씨가 어떤 글에서 처음 했고 그것을 우리가 인용하면서 책 제목으로 사용하게 된 건데 탈시설운동에 참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시설은 번지수를 가진 물리적 장소이지만, 장애인이 거기 들어가는 순간 자립할 수 없는 존재. 버림받은 존재라는 낙인이 부여되는 도덕적인 장소가 바로 시설이다. 그래서 장애인을 시설로 보내고 거기에서 살게 하거나 죽게 하는 권력은 국가와 자본, 가족의 삼각의 신성동맹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가족이 처음에 모든 사람은 자기가 태어난 장소가 있고 많은 경우에 가족인데 가족의 포기를 통해서 장애인이 시설로 이동하지만 사실은 국가가 그렇게 해도 좋다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인프라를 제공할거다 라는 배치를 통해 이것은 가능해진다. 그리고 가족이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정책에 의해 강제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국가는 그 안에서 벌어지는 폭력에 눈감음으로써 치외법권 지대를 만들고 있고. 시설내 거주인을 일정 수 유지하면서 상품성을 발견하고 보호노동을 강제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익은 사회전체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킨다는 이유로 정당화되고 있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54:50)

그래서 사실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헤리포터를 쓴 작가가 청년들에게 그렇게 배낭여행하고 다니면서 고아원 가면서 봉사하지 말라고. 그것은 그 시설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에 당신이 기여하는거다. 물론 그분이 나중에 트랜스젠더 혐오발언을 하셔서 약간 그랬는데. 어쨌든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굉장히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지금의 많은 대기업들이 노동권을 굉장히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특히 비정규직을 만들고 파견이나 여러가지 노동권을 파괴하는데 기여하는 자본의 문제가 있는데. 많은 대기업들이 사회공헌팀이 있고 그 사회공헌팀이 주로 하는 일이 이런 시설을 지원하는. 시설에 후원금을 보내고

봉사활동을 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사랑의 열매에 얼마를 보내고 그것을 통해 지정기부를 합니다. 꼭 시설에 보내라 하면서.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통해 복지시설에 돈이 가는데 그 돈의 많은 경우가 기업에서 주는 돈이거든요. 그리고 장애인 고용은 하지 않으면서 보호작업장에서 생산된 물품은 기업들이 사들이고 그것이 또 사회에 기여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가족 중에서 시장노동을 할 수 없는 사회구성원과 함께 살아보려는 의지를 가진 가족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의 노동시장에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야간노동을 하고 휴일노동을 하고 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런 시장노동을 하지 못하는 가족구성원과 함께 살 수가 없는 그런 조건을 기업이 만들고 국가가 그것을 용인 하고 국가는 그렇게 되면 시설에 보내라 하면서 이런 지금의 시설화된 질서와 배치를 국가와 자본이 만들고 가족은 그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생존을 위해서.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거대한 감금회로망 중에 하나이겠죠. 그리고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이 더 좋은 일이다 라고 동의를 하면서 거기에 후원금을 소액 보내는 사람, 거기에 봉사를 가는 주변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연결망. 그래서 사실 시설이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시설도 있지만 대개 산속에 있거나 이런 경우에 사실 많은 시설은 도시 한가운데 있고 서울 외곽에 많은 시설들이 처음 세워졌지만 도시개발을 통해서 어느 순간 논밭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아파트가 들어오고 시설이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 있는 시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시설에 봉사 오겠다고 하면서 주변의 교회들이 정말 많이 들락날락하고 사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전과 다른 식의 관계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결코 그 사람들이 거기 계속 살게하는 방식으로 관계들이 만들어지는 것 외에는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것은 모두의 공모와 동맹 속에서 이것이 전체사회를 결국 좋게 할거야 라는 동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58: 57)

### <공동행동과 도전행동>

그래서 저희가 IL과 젠더 포럼을 계속 거듭하면서 2019년에는 ‘공동행동과 도전행동’을 벌여보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더 했어요. 간담회를 통해서 만났던 청소년, 한부모, 난민, HIV감염인, 활동가들이 어떻게 우리가 함께 공동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드러냈고. 2부에서 도전행동은 이 IL운동 자체도 갱신되고 변화하고 도전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활동지원사 활동지원제도가 탈시설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제도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24시간 남의 손이 필요한 사람인데 어떻게 독립할 수 있냐? 했을 때 그것을 정당한 노동으로 합법적으로 제도가 보장하는 그런 관계로서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생활을 지

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것이 바로 활동지원사의 존재고 활동지원제도인데요. 문제는 이 노동 자체가 불안정하고 바우처라는 제도로 매개되는 관계다보니까 둘도 없는 동지가 될 수 있는 관계이기도 하고 사실은 의지나 관계맺음의 방식에 따라서 굉장히 억압적인 관계도 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계속 확인하는 과정이거든요. 어떤 장애인이 대부분은 시설에서 굉장히 큰 비리가 생겨가지고 그 시설이 폐쇄되면서 다른 시설로 전원을 하거나 지역사회로 나오는 경우가 서울 지역에서도 최근 몇 년 동안 몇 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시설에서 오래 수 십 년간 생활하다가 지역사회에 나온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고 있는데, 사실 30년간 이 분이 32살인데, 30년간 시설에서 살았어요. 그러면 당장 밖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누구와 만나서 나의 하루를 보낼 것인지 나의 하루는 어떻게 되어야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둘씩 알아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제도를 통해서 보장받은 관계는 이 활동지원사이기 때문에 활동지원사 관계에 따라서 정말 무한히 확장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루 종일 집안에서 둘이 약간 감금된 상황과 비슷한. 혹은 1인 시설 비슷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둘의 관계를 매개하는 중개기관의 존재가 있어요. 그 중개기관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중개기관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일 수도 있고 복지관일 수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공공기관에서 이 중개기관을 하기로 되어있는데 그것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거든요. 서울시에서 사회서비스원을 만들고 거기서 직접 고용한 활동지원사가 있고 이 분들은 월급을 받아요.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조건에서 안정된 조건에서 활동지원 역할을 하는 것이고 공공이 매개를 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노동조건이든 장애인의 목소리든 그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제기하기가 용이한. 이런 것들을 늘려나가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대부분 활동지원사는 아주 극히 소수만을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IL센터들이 중개기관의 역할을 최대한 늘려서 둘이 고립되지 않도록 이것을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개입과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강조를 하고 있는데, 사실 IL센터 중에서도 굉장히 운동성을 갖고 있는 IL센터와 그렇지 않은 IL센터가 있고. 정말 우리는 복지관과 거의 다를 바 없는 당사자가 할 뿐이지 그런 관점이 없는 곳도 당연히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장애인자립센터협의회라는 운동단체가 여기 가입해 있는 IL센터들이 운동성을 잃지 않고 진정하게 탈시설한 관계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역할은 뭘까? 를 고민해야한다 라는 것을 제안했던 자리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우처 제도가 없어져야한다. 바우처제도가 내가 몇 시간에 결제할 수 있는 결정권자이고 장애인이. 내가 카드로 결제하면 거기에 맞게 활동지원사의 노동을 내가 마치 구매한 것처럼 돌아가는 건데. 그래서 굉장히 내가 소비자 주권을 가진 사람

으로서 내가 활동지원사를 내맘대로 선택하고 마음에 안 들면 해고를 하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부르면 누가 올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고 정말 그것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조건이 아니거든요. 정말 사람이 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정말 나의 내밀한 모든 일상과 나의 신변처리를 행하는 노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관계를 맺었을 때 노동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거든요.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라야 이 사람도 정말 많은 근육과 근골격계질환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 사람도 정말 보호를 받아야하고 나도 존중을 받으려면 정말 예민한 문제이고 그래서 많은 장애여성들, 많은 장애인들이 정말 내 활동지원사를 정말이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 오늘 기분이 안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물도 덜 먹고 화장실 한번이라도 덜 가고. ‘감기에 걸리셨구나 오늘은 내가 조절해서 저 사람의 노동을 줄여줘야겠다’ 그리고 우리가 약속된 어떤 행위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바꾸고 싶을 때 조심스럽게 이야기 하고 동의를 구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지 저렇게 해도 되는지 절대로 일방적으로 지시하거나 명령하는 관계가 될 수 없거든요. 노동의 성격자체가. 그런 서로 돌봄의 과정들이 이 돌봄노동을 실제로 돌아가게 하고 이 돌봄의 노동의 질을 높이는 과정인건데. 지금의 제도는 전혀 그것을 반영할 수 없는 굉장히 소비자 주권과 바우처 결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 관계를 파괴하는 지점에 있다 라고 제기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장애여성공감에서 인권침해 사건을 제보를 받고 그것을 함께 해결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활동지원사의 역할이 너무 중요했었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연결했던 활동지원사 분이 있었는데 그 분이 너무 고민이 있다 내가 지원하는 분이 내가 보기에는 거의 감금상태인데 형제자매 집에 함께 살아가는 과정이었고 그 집은 굉장히 돈이 많은 집이었는데 이 장애여성도 같은 부모가 남긴 유산을 제도적으로는 균등분배 받는 과정이었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그 유산을 실질적으로 다른 형제자매들이 받아내거나 사용하기 위해서 사실상 보호 아닌 보호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생활수준은 정말 처참하다. 전혀 외출도 없고 밥도 따로 먹고 내가 가기 전까지 12시간 (이 사람이 하루 12시간을 쓸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가지 않는 12시간 동안은 기저귀를 통해서. 화장실 쓰기 위해서라도 밖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해서 저희에게 상담을 해주셨고 그래서 007 작전처럼 그 사람을 합법적으로 면회할 수 있는 사람은 활동지원사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의사가 무엇인지 녹음을 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이런 정말 함께 작전을 통해서 결국은 탈가정이자 탈시설을 해낸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공감에서는 훨씬 더 활동지원사의 관계가 달라져야 되고 달라질



수 있고. 그랬을 때 아 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 관계가 의미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꼈을 때 이 노동도 더 의미있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동료로서 활동 지원사를 호명하고 싶고 관계 맺고 싶다 이야기들을 했던 과정이었습니다.  
(1:09:04)

[시설사회: 시설화된 장소, 저항하는 몸들(와온, 2020)]

그러면서 책이 나왔네요 2020년에. 그래서 목차를 통해서 어떤 분들이 함께 했는지. 목차에 저희가 부가 5개가 있어요. 21명의 굉장히 많은 필자들과 함께 했던. 이런 경우에 출판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다행히 마무리가 되긴 했네요. 1부는 가족인데요. 아까 처음에 가족의 포기를 통해서 어떤 존재가 거리로 탈가정해서 나오기도 하고 어떤 보호소로 보호주체를 이동시키는 것을 지적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가족이 자본주의 근대 국가 안에서 사회기본단위로 규정을 받으면서도 경제 재생산을 위해서 기능을 해라 그 안에서 재생산 노동을 하는 이유는 그 구성원들이 다시 경제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지 않은 구성원을 위한 돌봄은 비가치화된 것으로 여겨지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돌봄 노동이 기본적으로 무급화됐고 일정부분 시장화된 부분만 급여가 지급이 되고 있는데 가능하면 무급의 형태로 알아서 잘 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좋다는 규범이 여전히 존재하는거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시장으로 아웃소싱해서 얼마든지 선택권을 보장해도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거죠. 그런데 이런 빈곤한 가족 안에서 예를 들면 누군가 돌봄노동을 해야하는데 이런 걸 시장화하거나 혹은 내가 시장노동을 할 수 있는데 가족을 위해서 무급노동을 하겠다 했을 때 가족의 생존이 어려워지는 중산층 이하 가족의 경우 그런 걸 선택하기 어렵고 질 낮은 일자리라도 함께 경제생활을 해야 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 안에서 시장노동을 할 수 없어서 가족 내에서 이런 무급노동을 하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인 인정이나 인식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시장노동의 상황과 연동해서 비시장노동, 혹은 무급노동에 대한 가치나 존재들에 대한 인정부분이 연결되어 있다 생각하고. 혹은 정말 가족의 상황으로 인해 이런 비시장노동을 하는 구성원들이 가족 안에서조차 생존이나 보호가 담보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구성원에 대한 낙인, 혹은 갈등이 생겼을 때 여기 안에서 어떤 협상이나 관계에 대한 조율이 불가능한 어떤 사람의 경우에 가족을 떠나는 방식으로 폭력의 피해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거리나 보호소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여기 안에 입양을 통해서 혹은 탈가정 청소년 특히나 대부분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탈가정을 하게 되고 성소수자 청소년의 경우에 가정폭력의 빌미가 정체성과 연결되는 지점이 많이 생기고

그런 것 같아요. 한부모같은 경우에 탈시설 운동을 최근 몇 년간 시작을 하시면서 저희가 함께 만나게 되었는데 한부모같은 경우에 국가가 규정한 한부모와 실제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사유리씨 같은 경우도 한부모인데, 법적인 한부모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한부모지원법에서 규정하는 한부모는 소득이 일정부분 이하인 경우만 한부모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국가가 그런 식의 법적으로 규정한 한부모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시설보호가 있고 혹은 주거지원이나 소득지원 이런 게 있는데 문제는 한부모 운동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많은 부분은 시설보호에 너무 많은 예산을 쓰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종사자 월급도 줘야하고 물리적 시설이 계속 돌아가야하고 그런데 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을 쪼개서 한부모가 자립할 수 있는 종잣돈으로 쓰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부모가 취약하다 그래서 보호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이런 정책들을 만들었지만 결국은 그것이 한부모를 주체화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다라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아 장애인과 굉장히 유사한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특히 여성 한부모가 시장노동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지 않는 국가. 그래서 여성노동,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생계가 실제로 불가능한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시설화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는 지점들. 하지만 국가는 취약하니까 보호를 하겠다 라고 하면서 그것만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전반적인 문제제기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시장노동의 문제와 시설화와 가족의 문제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1:16:13)

1부에서 5장 같은 경우는 재가장애여성들이 어떻게 시설화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친밀한 통제라 가족이나 애인, 파트너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문제는 장애여성이 대부분 수급권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리고 장애인이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아니면 수급권을 가진 사람이 임대아파트에 접근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문제는 이 장애여성이 사회로부터 국가로부터 받는 지원 체계 안에서 그것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장애여성 회원같은 경우에 이름이 내 명의인데 이 집에 대한 운영권은 전혀 없는. 내 방도 없는 경우가 너무 많고. 내 이름으로 차를 샀지만 그 차는 가족들이 이용하는 그런 경우들. 하지만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 이것을 보면서 친밀한 통제라는 이름으로 이런 억압들을 드러내고자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2부와 3부는 도시와 보호소 문제들을 이야기 합니다.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도시에 자리를 잡거나 보호소로 이동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사실 이 도시가 홈리스의 어떤 존재들을 쉽게 생각했

을 때도 그 안에서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구걸노동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정말 일시적인 육체노동을 하면서 거리에서 생활을 이어나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당연히 위험한 환경에 노출이 되고 장시간 노동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일을 하지만 자활을 해야한다 라고 계속 압박을 받지만. 그 자활을 해야만 당신이 수급권이나 이런 걸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기준을 맞추느라 또 건강이 파괴되거나 생명을 잃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도시로 나간다고 했을 때 내가 어떤 상황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 가 훨씬 더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굉장히 뭔가 보호막 없이 너무 확연하게 드러나는 과정인 것 같고. 그리고 도시부에서 8장 같은 경우는 대구지역의 사례를 경험을 써주신 건데요. 대구시립희망원이 너무 비리가 심해서 시설이 폐쇄되었는데 여기 안에 중증의 중복 발달장애인이 많이 살고 있었고. 대구의 탈시설 활동가들이 탈시설 욕구조사를 하거든요. 나는 전원 다른 시설로 가겠다. 아니다 나는 지역사회로 가겠다. 그런데 중증발달장애인같은 경우는 의사소통을 언어적인 방식으로 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욕구조사에 대답을 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았고. 그랬을 때 정부는 탈시설하겠다고 말을 안했기 때문에 당연히 전원시켜야한다고 주장을 하고. 탈시설 활동가들은 말을 안했는데 어떻게 아냐? 그랬을 때 당연히 시설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역사회로 나와야 한다 주장을 했고. 그러면 대구시에서는 그럼 당신들이 책임을 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정말 탈시설지원체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활동가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탈시설을 지원했던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무응답층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탈시설권리는 누구에 의해서 확인되고 누구에 의해 옹호될 수 있고 누구와 함께 실현될 수 있는가? 라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던졌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함께 겪어나가면서 점점 확인해나가는 과정들. 그래서 아 한사람 한사람마다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는지 서로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점점 시설이 아니라 여기서 하는 것이 좋고 유지하겠다 라는 것들을 확인해나가면서 이 지역사회 생활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유일한 선택이다. 지역사회라는 게. 그랬을 때 이 유일한 선택을 어떻게 실현시켜나갈까? 를 중심으로 이야기 해야지 다른 선택지가 마치 동등하게 놓인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탈시설 권리는 영영 오지 않을 권리다 라고 자신감있게 용기있게 제기하는 글이었어요. (1:21:56)

그리고 3부 보호소 같은 경우는 난민시설과 요양병원 그리고 정신장애인 요양원이나 병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동안 구금시설로 인식이 되지 않은 외국인지원센터. 사실 그 말속에는 그 어디에도 거주시설이라는 상상조차 하지 않는 영종도 시설의 이름이 외국인지원센터 맞죠? 외국인보호

센터? 보통 센터는 주간시설이거든요. 이용시설이 센터인지 거주시설의 느낌이 전혀 없는데. 거기 안에 정말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물을 만들고 허락을 받아야 외출을 할 수 있고 뭔가 자격을 계속 심사하는 것들이 돌아가고 있다는 점을 10장에서 연주님이 이야기해주셨고. 그리고 당연히 외국인보호소의 문제들을 이야기 해주셨는데 이것이 한국사회에서 난민인정체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연동하면서 난민의 노동이 가능하지도 불가능하지도 않은 그 사이에서 계속 고군분투해야 되는 그런 과정과 연결되는 지점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사실 요양병원의 문제가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인데 사실 요양병원이 수용시설이 전혀 아니고 정말 요양이 필요한 환자가 자의로 입원하고 자의로 퇴원하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병원이어야 하는데, 많은 요양병원이 특히나 노숙인, 감염인 같은 가족이 면회를 하지 않는 요양병원 환자 같은 경우는 시설화된 상태에 놓여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매환자 중에서도 전혀 면회를 하지 않는 환자 같은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한 처우나 복지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고. 특히 HIV 감염인 같은 경우에 우리는 받을 수 없다고 대부분 거부한 상황에서 지금 유일하게 우리가 받겠다는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다른 환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 건물 전체에 감염인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자기가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 시설에 방문하면 벽지조차 없는 굉장히 시멘트 벽에 너무나 열악한 전쟁통에 있는 것 같은 말도 안되는 시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고. 거기에서 나오려면 허락을 구해야만 퇴원이 가능한 말도 안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난 나가겠다 했는데 당신 나가려면 대통령 허락 받아오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분증을 실제로 사무직원이 가지고 있고 그걸 받아서 나가려고 했는데 주지 않는 상황. 그리고 어떤 경우는 정말 몰래 나가서 자기 주소지에 갔는데 자기가 살던 집에 열쇠가 없어서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을 배회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본 경찰이 그 사람 어디서 왔냐? 난 요양병원에서 왔는데 난 퇴원을 했고 집이 있어서 가려고 한다 했더니 경찰이 요양병원에 전화를 해서 다시 데려가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감금회로망의 위용을 그때 실감을 했던 상황인거고. 그리고 요양병원이 굉장히 많이 지어졌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를 위해 공간을 만들면 거기를 유지시키고 거기를 채워야 하잖아요. 요양병원의 베드를 채워야 그것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 퇴원하는 것을 환영하지 않고 죽어서야 나갈 수 있는 상황? 누군가 없어졌을 때 누군가 와서 베드를 채워야 최대한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어서 서울역에 있는 노숙인 중에서 인천에 있는 어떤 요양병원에서 납치하듯이 그 사람을 데려다가 주민등록번호를 다시 부활시켜주고 그래야 요양수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요양병원에 지금 지내고

있는 사람이 꽤 많고. 나중에 홈리스 선생님 통해 연락이 와서 알고보니 왜 안보이시지? 했더니 자기도 모르게 어디 요양병원에 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탈시설 운동을 해서 시설을 없애나가고 있고 더 이상 신규시설이 만들어지지 못하도록 하고는 있는데, 이것이 이런 요양병원이 기존의 시설 역할을 대신하고 있고 정신장애,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에 굉장히 오랫동안 병원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 퇴원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자신의 결정으로 퇴원조차 할 수 없는 정신장애인의 경우 거의 구금되어 있는 상태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아까 ‘쇠약화’ 라는 어떤 개념 혹은 ‘시설화’ 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게 국가와 자본이 결탁하고 있는 시스템으로써 시설화된 사회가 만들어진다고 할 때, 의료권력 그리고 의료수가 그리고 의료적인 행위를 통해 만들어지는 어떤 이득이나 가치가 있을 때 이것이 계속 돌아가기 위해서는 누군가 병원을 채워야 하잖아요. 그래서 국가는 이것을 계속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수가를 높여준다거나 요양병원이 오랫동안 누군가를 붙잡아두는 것에 대해 모른척하는 것. 그러면서 요양병원을 계속 지원해주는 것, 그리고 가족들은 요양병원에 보내는 것 외에 어떤 선택지를 가지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열악한 요양병원일수록 열악한 사람을 계속 찾아내서 거기를 채우는 상황. 그랬을 때 정말 다치고 아픈 사람 그리고 나아지지 않는 사람, 나아지면 퇴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양병원에 들어가는 순간 이 요양병원 환자는 호전되기를 기대받지 않는 환자라는 거죠. 그런 몸이 계속 필요하다. 그래야 이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고 이 시스템을 통해 우리는 국민보험을 내고 있고 의료수가를 내고 있고 이것이 돌아가고 있고 우리나라의 의료체계가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계속 내 몸으로 이런 수익을 계속 내주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나의 권리와 상관없는 방식으로 수익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권미란씨가 그 이야기를 썼던 것 같아요. 요양병원에 들어가는 순간 호전되기를 기대받지 않는 환자들이다. 그래서 요양병원도 대개 다양한 환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암환자들이 주로 가는 요양병원은 항암치료를 통해서 너무 호전이 되는 환자가 있고. 말기환자가 있고. 말기환자의 경우 호스피스 병동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암환자가 아니라 특정한 질병, 치매, 노인성 혹은 HIV 감염인. 이런 생산능력이 더 이상 기대 받지 않는. 그리고 혹시 함께 일하는 것이 전혀 기대 받지 않는. 지역사회에서 이웃으로 함께 살기를 기대받지 않는 사람이 요양병원에 갔을 때는 거기가 삶의 종착지가 될 가능성이 너무 커지는 그런 상황이 눈에 보이는 것 같고 정신장애인도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1:31:10)

4부와 5부는 대안을 찾아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법제도가 어떻게 시설사회를 구축하는지에 대한 문제제기. 그리고 시설화된 장소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노동의 문제, 혹은 문화적인 재현을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사람들이 어쩔 수 없다. 좋은 시설에 가면 괜찮지 않을까? 라고 포기하는 마음을 재현들이 하고 있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소비자주의가 어떻게 전체적인 권리를 높이기보다 낮추는 방식으로 기여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제기들을 하였고. 5부에서는 좀 우리가 시설화된 현장 안에서 혹은 시설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바등을 치고 있는 문제의식들을 담아내기 위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성폭력 피해자나 가정폭력 피해자의 쉼터가 어떻게 시설적인 성격을 최대한 벗어나서 권리에 가까운 현장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비장애인 피해자시설 같은 경우는 그다지 시설화의 위험이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기쉼터밖에 없기도 하고. 문제는 장애여성 성폭력피해자가 되어서 장애여성피해자쉼터에 가면 3년, 5년 거주기간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피해자가 돌아갈 곳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이 쉼터는 중간다리 역할. 내가 힘을 내서 주변을 정리하는 시간이 될지 아니면 그 자리에 눌러앉아서 대안 없는 혹은 더 이상 새로운 지역사회관계들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용인하고 최소한의 보호만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지 나눠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 가정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너무 다시 피해가 반복되거나 다른 선택지를 가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랬을 때 정말 피해자가 거기 현장 안에서 떠나서 이동했을 때 그 이동이 시설로의 이동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삶의 조건을 만들 수 있는 이동이 되려면 쉼터와 탈시설지원운동이 긴밀하게 만날 수밖에 없겠다 라는 공감도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주거권에 대한 문제의식도 만나야 되고 기존에 이 사람을 억압했던 친밀한 통제적 관계에서부터 어떻게 빠져나올 것인가? 그러면 이 사람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친구관계는 어디서 가능할 것인가? 이런 탈시설운동에서 고민하는 종합적인 삶의 고민이 이뤄져야만 가정폭력 피해자가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인데 지금은 그런 문제의식이 별로 만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분절적인 형태로 피해자 지원 따로 탈시설운동 따로 이루어진 것 같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은 장애인 운동 안에서 젠더 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려나 관점이 굉장히 부족한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장애인 학대 피해자를 지원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몇 개 생기고 장애인학대피해자 쉼터도 생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너무나 사법주의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정법으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피해가 아니면 저희가 해결하기 어렵다. 그런데 사실 많은 경우에 친밀한 관계에서

는 정말 상해죄로 처벌이 가능한 정도의 피해도 있지만 거기까지 가기 이전에 굉장히 정말 억압적인 관계들이 많이 있고. 모욕적인 관계들, 정신적인 지배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이 사람이 탈가정과 탈시설을 해야한다고 주장 하더라도 지금의 탈시설 지원정책은 시설에 있는 사람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과의 관계에서 너무나 고립되고 은폐된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은 차별을 당하고 억압을 받고 있다고 주장을 하더라도 지금의 지원체계 아래서는 피해로 규명하고 이 사람을 위해 지원체계를 굴릴 수 있는 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탈시설 지원정책을 받아서 활동지원사도 받고 지원주택에도 가려면 일단 시설에 가야 그다음에 나올 수 있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인거고.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그런 학대 피해자가 되려면 정말로 누가 봐도 심각한 피해노출이 되어야만 이 사람을 거기서부터 분리해낼 수 있는 강제력이 동원되는 상황?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무수한 존재들과 경험들을 우리가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증언할 수 있을까? 어떻게 발화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경찰이나 변호사로서의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친구가 필요하고 동료도 필요하다. 그래야 “너 거기 아닌 것 같아 다른 것 찾아보자” 라고 제안할 수 있는 게 없으면 죽어서야 드러낼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은 상황인거 같아요. 그것이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해방의 네트워크? 네 그런 관계들인 것 같아요. 지금 국가에서 혹은 지금 제도가 보장하고 있는 것은 정말 중한 학대, 누가 봐도 피해자 그리고 기존에 법으로 인정하는 규명된 피해가 아니면 그 사람이 이동을 할 기회, 새로운 관계를 맺을 기회 이런 것들은 너무 운에 맡겨져 있고. 그 운을 기대하기에는 정말정말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장애여성공감은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가호호 방문해서 “혹시 장애여성 살고 계신가요?” 이렇게 하기가 어렵고. 장애여성활동가들이 길에 장애여성이 지나가면 활동가들이 이렇게 말을 붙인대요. “안녕하세요? 우리 알고 지내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만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해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성폭력 피해자로서 처음으로 우리 단체에 오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하고 사법적으로. 그런데 사법적으로 해결이 안됐지만 우리가 알게 된 이상 내담자에서 회원으로 전환이 되고 이 과정들을 5년 10년 15년 겪어나가면서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는데, 근데 이 탈시설 동료가 되는 그 시간은 진짜 긴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기존에 익숙해있던 관계 혹은 모두가 저 사람에게 복종해라 저 사람 말을 잘 들어라 그 이야기만 듣고 살아왔던 그 관계로부터 단절하거나 그 관계가 시키는 것을 거부하고 공감에 와서 시간을 보내고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점점 더 그 비중을 달리하고 결국은 저기를 단절하고 장애여성공감을

통해서 맺은 관계를 생활의 중심으로 놓기까지 정말 많은 우여곡절과 단절과 후퇴와 전진과 이런 연락두절과 다시 연락이 오고, 그 연락은 어떤 사건을 통해 다시 연락이 오기도 하고, 이런 시간이 10년 이상 걸리는 것 같아요. 이것은 최고로 기울어진 운동장인 것 같아요. 밋줄로 정말 열심히 왔는데 한번 잘못되면 쪽 미끄러지는. 그러기에 너무 좋은 사회조건인 것 같아서 누구도 지지하지 않고 누구도 하라고 하지 않는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 지금의 시설이 정상화된 사회에서 탈시설하겠다는 거고 거기에 기반해서 관계를 맺고 알 수 없는 위험에 도전을 해보겠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점점 그 시간을 보내면서 점점 확신을 가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실 엑시트 활동가들이나 다른 저항의 현장에서 고민하는 활동가들과 이야기해봤을 때 좌절의 순간이 너무 많고 난민인권 활동가들도 그럴 것 같아요. 너무 공을 들여서 우리가 상호적인 관계를 맺었는데 어느 순간 강제출국이 되어버리고 연락두절이 되어버리고 그게 그래도 좋은 선택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때부터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어쨌든 강제적으로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가 생길 때 굉장히 힘이 빠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해방의 네트워크는 정말 어렵고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던 간에 리스크라고 하는 위험의 가능성은 언제나 상존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자동차를 굴리는 순간 언제나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것처럼. 그런데 비규범적인 어떤 도전을 했을 때 더 큰 낙인과 보호가 철회될 것을 감수하면서 도전을 해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아 나 못하겠다’ 이렇게 하거나 관계를 굉장히 정성들여 맺어왔던 사람도 어느 순간 배신일 수 있고 ‘나는 돌아가겠다’ 라고 결정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일단 놓고 제가 생각하기에 거의 유일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실망하지 않고 긴 시간을 내다보는 것’. 그것 외에는 우리가 가진 자원이나 방법이 없다.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버티기만 하면 괜찮은 것은 점점 확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과 못했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왔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약간 화신이 찾아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그냥 생존하는 것 그리고 서로 안부를 물을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연락이 끊기더라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기대를 놓지 않고 이 터전을 없애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유지를 해나가고 그러면 누가 다시 찾아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제목을 만들면서 어떤 신박한 대안이 혹시 있지 않을까? 라고 했지만 역시나 없고. 버티기! 그래서 우리가 결국 아직은 ‘점’ 들일 수 있는데 이것이 조금 ‘선’으로 연결됐다가 다시 ‘점선’이 됐다가 ‘선’이 됐다가 중간에 끊기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안식월도 가져야 하고



안식년도 필요하고, 우리도 그런 ‘점선’들을 우리가 서로 기다리면서 그렇게 지내보는 것. (1:45:08)

그래서 며칠 전에 변희수 하사의 1심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것이 군의 결정이 위법하다. 많은 사람이 안타까워. 너무 기쁘면서도 왜 이렇게 늦은 결정이 나왔을까? 저도 당연히 그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고. 작년 몇 달 전에 우리 곁을 떠났을 때 그때 옆에서 지원했던 사람들이 했던 고민 중의 하나는 변하사가 너무 이기고 싶어 했고 군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지만 이 소송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최소 대법원까지 가려면 몇 년이 걸리는데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을까?를 제일 힘들어했다고 해요. 자기가 옳고 선택이 틀리지 않았고 너무 싸우고 싶은데 그 싸움의 시간을 버티는 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생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싸우는 사람의 생계. 그리고 꽤 알려진 사람이어서 어디에 아르바이트를 상상하기도 힘들어했던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생계와 노동의 문제가 사실은 ‘시설화’를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긴 시간을 버틴다고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생각을 또다시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그 버틸 수 있는 힘과 자원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그랬을 때 저는 정말 동료가 되고 싶은데 그 동료가 된다고 할 때 공감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불화하는 동료가 되고 싶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장애여성 회원들과 동료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갈등을 할 수 있어야하고 서로 불만을 제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내가 뭔가 문제제기를 하고 비판을 하면 저 사람이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는 동료가 되기 어렵고 일방적인 지원밖에 안될 것 같은데. 서로 요구하고 조율하고 서로 비판하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동료가 되고 싶다. 그런 관계를 위해서 비발달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이 평등해지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매일 매일 실감하기도 해요. 그럴려면 사실 우리만 그런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되고 사실 발달장애인이 장애여성공감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문제제기를 했을 때 너무나 쉽게 관계를 단절해버리는 주변사람들로부터 반복적인 경험을 했을 때 공감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너무 알잖아요. 이것은 항상 단절의 경험이었는데 문제제기를 하는 순간. 공감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 그것도 꽤 오래 걸렸던 것 같고.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만 할 수 밖에 없는 발달장애인에게 허락된 말.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자기 욕구와 자기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관계가 되고 싶다. 저는 그 변희수 하사 말씀 들으면서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사실 우리가 병역거부 운동을 하고 전쟁반대운동을 하고 탈군사회운동을 하는 활동가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매년 병역거부자의

날 때 난민심사 제도와 병역거부자 심사제도와 트랜스젠더 심사제도가 얼마나 나쁜지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그랬을 때 이 군대에서의 평등권을 요구하는 것과 동시에 모두가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을 어떻게 동시에 이야기할 수 있을까? 변희수 하사는 언젠가 이 이야기를 너무 하고 싶다 싸우더라도. 그런 미래를 그리고 싶었는데 그런 것을 그리기 어려운 것이 우리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는 대개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대개 긴 시간을 기다리고 싶었고. 정말 애국심으로 싸우고 싶은 사람인데 지금은 반대하기 어렵거든요. 변희수 하사가 살아있을 때 애국심으로 싸운다 했을 때. 하지만 언젠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기대를 갖고 있었고. 그것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그런 과정들을 함께 겪어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까지 해보면서 긴 시간동안 계속 만나가는 동료가 더 많은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간을 일단 마무리 해봐도 괜찮을까요? (1:50:45)